

메시지 11  
복음, 하나님의 구원,  
시대적인 전환의 필요성

성경: 행 1:3, 6-8, 8:12, 13:39, 14:3, 16:31, 20:24

- I. 사도행전에서 전파된 복음은 완전한 복음으로서,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라는 복음(행 5:42), 복음인 말씀(8:4),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(12절),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의 복음(12절), 화평의 복음(10:36), 복음이신 주 예수님(8:35, 11:20),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의 복음(13:32), 복음인 예수님과 부활(17:18),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(20:24)이다.
- A. 우리는 사도행전 8장에서 복음을 전파한 빌립에게서 배워야 한다.
1. 빌립은 그리스도를 복음으로, 좋은 소식으로 전파했다—행 8:5, 12, 35.
  2. 빌립은 또한 주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왕국을 복음으로 전파했다—행 8:12, 막 1:14-15, 눅 4:43.
  3. 빌립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,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복음을 전파하고, 하나님의 왕국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한다—행 8:12.
- B. 사울이 돌이킨 것은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충분한 복음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—행 9:4-5.
- C. 우리는 복음을 전파할 때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일을 모두 선포해야 한다—행 9:20, 22.
- D. 베드로가 전파한 복음은 용서(행 5:31, 10:43)와 구원(2:21, 4:12)이라는 신성한 축복뿐만 아니라 그 영(2:38)과 생명이라는 신성한 축복을 포함한다. 용서는 사람들의 죄들을 처리하고, 생명은 사람들의 죽음을 처리한다(요 5:24, 요일 3:14, 고후 5:4).
- E. 아테네에서 바울은 “예수님과 부활을 복음으로 전하고 있었다.”—행 17:18.
1. 바울의 전파는 그가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로 조성되었다는 강력한 표시였다—빌 3:10.
  2.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의 존재, 곧 우리라는 사람에 달려 있다.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능력이 있으려면 바울과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로 조성되어야 한다—고전 2:2, 4-5.
- II. 사도행전에 있는 기록에 의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구주(행 13:23), 회개(5:31), 믿음(15:9), 용서(13:38-39), 의롭게 됨(39절), 영원한 생명(48절)을 포함한다.

## 사도행전

### 메시지 11(계속)

- A. 구속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것이고, 구원은 성취된 이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한 것이다—엡 1:7, 골 1:14, 행 4:12, 28:28, 롬 1:16, 3:24, 10:10, 13:11, 히 2:3, 10, 5:9, 9:12.
- B. 하나님은 다윗의 씨에서 구주 예수님을 나게 하셨다. 그분께 구원이 있다—행 13:23.
- C. 영도자와 통치자와 구주로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목적을 위해 땅을 다스리고 계신다—행 5:31.
1. 주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받도록 다스리고 계시며, 이제 구주 자신이 우리의 구원이다—행 5:31, 2:21, 40, 47, 8:37, 16:31, 눅 2:30, 19:9.
  2. 영도자와 구주로서 그분은 회개와 죄들의 용서를 주신다. 그분의 주권적인 다스림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을 이끌어 회개하게 하고, 그분의 구속에 근거한 그분의 구원은 그들에게 죄들의 용서를 준다—행 5:31.
    - a. 회개는 죄들이 용서받기 위한 것이다—눅 24:47.
      - (1) 하나님 편에서 죄들의 용서는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죽음을 통해 성취하신 구속에 근거를 둔 것이다—행 2:38, 10:43, 엡 1:7.
      - (2) 사람 편에서 죄들의 용서는 사람의 회개를 통해 얻는 것이다—행 5:31, 막 1:4.
    - b. 죄들의 용서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에 있어서 초기의 기초적인 복이다. 용서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복은 계속 나아가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으로 완결된다—행 2:38.
- D.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구속의 일을 포함한 은혜로 구원받는다—행 15:11, 11:23, 롬 3:24.
- E. “이분 안에서 믿는 이는 모두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.”—행 13:39.
1. 죄들이 용서받는 것은 부정적인 것을 처리하는 면으로서(행 13:38) 우리가 유죄 판결에서 해방되기 위한 것이다. 의롭게 되는 것은 긍정적인 면으로서,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분께 기쁘게 받아들여지는 것이다—행 13:39, 갈 2:16, 롬 3:24-26, 28, 5:1, 11.
  2. 사도행전 13장 39절에서 ‘이분’은 부활하시어 하나님의 만아들, 우리의 구주가 되신 분이시다—행 13:33.
  3. 우리는 이분에 의해 용서받고 이분 안에서 의롭게 되는데, 바로 이분 자신이 우리의 용서와 의롭게 됨이시다.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용서와 의롭게 됨이시다—행 13:33-34, 38-39.

## 결정 연구 개요

### 메시지 11(계속)

- F. 하나님의 구원은 믿음에 의해, 곧 믿는 행위에 의한 것이고,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됨을 체험한다. 이렇게 깨끗하게 되는 것은 성령에 의해, 신성한 생명으로 되는 것이다—행 8:37, 15:7, 9, 16:31.
- G. “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정해진 사람들은 모두 믿었다.”—행 13:48.
- 어떤 사람이 복음을 배척하는 것은 그가 영원한 생명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증거이고 (46절), 어떤 사람이 복음을 믿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지명하거나 정하셨다는 증거이다—행 13:48.
  - 사람이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, 즉 미리 정하신 것은 주권적으로 그분 자신께 속한 것이다. 그러나 그분은 여전히 사람이 자신의 자유 의지대로 행하도록 두신다. 사람이 그분의 구원을 믿느냐 배척하느냐는 사람 자신의 결정에 달려있다—행 13:48, 살후 2:13, 행 8:37, 16:31.

### III.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기 위해 시대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묘사한다—행 1:6-8, 딤후 1:4.

- A. ‘시대’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속한 신성한 안배를 가리킨다.
- B. 사도행전은 다만 행적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과 그분의 경륜에 속한 그분의 안배에 관한 것이다—행 1:8, 9:15, 17.
- C. 사도행전은 시대적인 책인데, 그것은 이 책이 과도기 동안에 성취되어야 했던 커다란 전환, 곧 구약 경륜에서 신약 경륜으로의 전환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이다—행 15:7-11.
- 사도행전에서 시대적인 전환을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 책에서 옛 시대에서 새 시대로 큰 전환이 필요함을 보았다는 것을 의미한다—행 14:1-3.
  -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위한 그분의 움직임과 이 움직임에 관련된 중요한 모든 시대적 전환점들을 볼 수 있다—행 1:6-8, 10:45.
- D. 옛 시대는 율법과 성전의 시대였고, 새 시대는 생명의 법이자 살아 있는 성전이신 그리스도의 시대이다. 이 두 시대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민을 옛 시대에서 새 시대로 옮기시는 과도기가 있었다—행 6:14, 7:48-49, 롬 8:2, 엡 2:21-22.
- E. 하나님은 그분의 신약 경륜에서 그리스도 안의 유대인 믿는 이들을 유대 민족에게서 건

## 사도행전

### 메시지 11(계속)

- 지시고 분별하셨다.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인 유대인 믿는 이들은 이방인들에게서 구별되고 분별되듯이 유대인들에게서도 구별되고 분별되어야 한다—행 2:40, 고전 10:32.
- F. 사도행전에 있는 누가의 서술에 의하면, 초기의 사도들을 포함해서 유대인들 가운데 있는 교회는 그들의 유대교적인 배경의 영향으로 인하여 이러한 과도기를 성공적으로 통과하지 못했다—행 11:1-2, 17-18, 15:1-2, 13-21.
- G. 야고보와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과 수많은 유대인 믿는 이들은 여전히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모세의 율법의 혼합 가운데 머물렀다—행 21:18-26.
1. 그들은 율법 시대가 끝났고 은혜의 시대를 완전히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몰랐으며, 이 두 시대의 구별을 무시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표현인 교회를 건축하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적인 계획과 반대된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했다—롬 10:4, 갈 2:16, 21, 3:23-29.
  2.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과 구약 시대의 종교적인 혼합물을 형성했고, 심지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시대에 뒤쳐진 구약의 것들을 함께 두기를 고집하기까지 했다—행 21:18-26.
  3. 이러한 혼합은 오류였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증스런 것이었으므로, 하나님은 황폐한 혼합이 예루살렘이 멸망함으로 종결될 때까지 예루살렘 교회를 그대로 두셨다—마 22:7.
- H. 주님은 바울과 더불어 완전한 시대적인 전환을 수행하셨다. 이러한 전환에 관련하여 중요한 네 서신인 에베소서, 빌립보서, 골로새서, 히브리서에는 혼합을 위한 조금의 여지도 없다.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여지만이 있을 뿐이다—엡 3:14-21, 빌 3:1-11, 골 3:10-11, 히 8:6-13.
- I. 우리는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알아야 하고 시대적인 전환을 가져야 한다—딤후 1:4, 엡 1:10, 3:8-11.
1.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 안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나누어 주심으로 그분을 번식시키시어, 우리가 그분으로 적셔지고 조성된 그분의 살아 있는 지체들이 된 결과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표현을 위해 이 땅에서 몸을 가지시도록 하는 것이다. 그럴 때 그분은 그분의 왕국을 가져오실 것이고, 그 후에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궁극적인 완결이 있을 것이다—행 4:33, 엡 3:14-17상, 4:16, 계 11:15, 21:1-2.

## 결정 연구 개요

### 메시지 11(계속)

2.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대한 이상을 보고 시대적인 전환을 가짐으로, 완전히 하나님의 신약 경륜과 일치하고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위한 생활을 해야 한다—잠 29:18상, 롬 8:4, 갈 5:16, 18, 25.
3. 우리 자신을 이러한 시대적인 전환 안에 지키는 길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대한 이상에 변함없이 신실한 것이다—행 26:19.